

# 5살 아이도 말 타고 활 쏘고...국민축제 '나담축제'

아시아 문화  
원류를 찾아서 <77>

9부 몽골·브랏트 편

❑ 척박한 땅에 핀 문화꽃

몽골=글 오광록·사진 최현배 기자

대통령도 손 꼽아 기다리는 연말 씨름대회  
선수는 정계 진출하고 사회 지도층 대접  
조상 얘기 전하며 안위 염원하는 '토울치'



지난해말 울란바타르 시내 씨름장에서 열린 씨름대회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다. 몽골쪽은 7월 나담축제를 열고 씨름과 말타기, 활쏘기 등을 즐긴다. /최현배 기자

2009년 겨울 몽골에 영하 40~50℃의 혹한이 계속됐다. 겨울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몽골 전체 가축수의 20%에 해당하는 820만두의 소와 양, 염소가 몰사하는 '대재앙'이 발생했다. 농사가 여의치 않은 몽골에서 가축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다. 몽골 초원에서는 무서운 재앙을 일러 '조드'라고 한다. 겨울이면 수시로 영하 50℃까지 내려가는 방원에서 수천 마리 가축이 때로 죽는 일이 빈번하다. 몽골인은 이 같은 재앙을 '차강 조드'(하얀 재앙)라 부른다.

이 척박한 땅에서도 슬픔을 달랠 수 있는 문화가 꽃피었다.

몽골은 할흐, 카자흐, 브랏트계 등 20여개의 부족이 모여 살고 있고, 이중 할흐족이 대다수(75%)를 차지한다. 소와 말과 양을 키우며 살아가는 대부분의 몽골족은 7월이면 초원에 모여 말타기와 활쏘기, 경마 등을 즐기는 나담 축제를 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나갔다. 나담 축제에는 5살 아이들까지 참여할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사다. 또 유명 씨름선수는 정계에 진출하는 등 사회 지도층으로 존경받기도 한다.

여전히 나담은 몽골의 가장 큰 축제이며, 연말에 열리는 씨름대회에는 대통령이 참관하고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주요 행사다. 러시아의 영향으로 공산 사회를 경험하고, 티벳 라마불교를 받아들이며 전통 문화 전반에 변화를 겪고 있다.

또 한 때 몽골 대륙을 지배했던 흉노와 돌궐, 거란 등 술한 부족의 역사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무리와 나라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 종족과 나라는 서로 다른 문화를 주고 받았다. 이 때문에 몽골 땅 곳곳에서는 각기 다른 문화의 유물이 발굴되고 있다.

많은 부족이 힘의 균형에 따라 지배와 피지배를 반복하면서 문화를 주고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몽골인들은 바이칼과 사만의 땅 흡수굴을 신성시한다.

유목민 몽골 민족에게도 이야기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별다른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입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 교훈과 삶의 희망을 담아냈

다. 이 때문에 이야기의 탄생한 과정을 담은 설화가 유명하다.

아주 오래전 무서운 돌궐병 '하르 체제그'가 들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손 쓸 겨를도 없이 죽는다. 그 가운데 열다섯 살 난 '소호르 타르와'라는 사내아이가 혼자 버려져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저승으로 간다. 이 아이는 염라대왕 앞에 섰다.

염라대왕은 소년이 완전히 죽을 때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저승으로 온 데 감동을 받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때 염라대왕은 소년에게 무엇이든 한 가지 가지고 가라고 말했고, 소년은 이야기를 선택했다.

세상에 돌아온 소년은 자기 몸을 찾았지만 이미 까마귀가 파먹어 두 눈이 없었다. 소호르는 염라대왕의 명을 어길 수 없어 두 눈이 없는 제 몸통어리로 들어갔다.

그 후 몽골 초원에는 앞을 못 보는 사내가 돌아다니다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가 눈이 없어도 앞날을 본다고 생각했다.

몽골의 이야기꾼은 토울치(tuulchi), 토일치 등으로 불린다. 토울치는 구전돼 오는 영웅 서사 '토울'을 전문으로 구연하는 전문가(지)라는 뜻을 담고 있다.

토울치는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두 줄짜리 현을 단 '툽소르'를 정성스럽게 연주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는 집안의 액운을 떨치고 복을 기원하는 의식을 한다. 토울치가 산신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알타이 막달'을 부르는 지역도 있다.

브랏트에서는 토일치를 '올게르치'라고 하며, 특별히 서사시 '장가르'를 부르는 사람을 '장가르치'라고 한다. 또 조상의 공훈과 무용담을 통해 자원을 위로하고, 지역과 부족민의 안위를 염원하는 일종의 제사장적 성격을 띠기도 한다.

술한 재앙 속에서도 민족의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술한 토일치를 통해 전해오던 이야기였는지도 모른다. 마지막 순간에도 생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힘. 그게 바로 몽골 문화의 저력이다.

/kroh@kwangju.co.kr

▶ 돌궐족의 유물인 산양뿔로 만든 6줄 악기 '알타이 하프'.



흉노...  
거란...  
돌궐...

승자의 문화와도 공존

각기 다른 민족의 고유한 유물이 발굴되는 곳이 몽골이다. 거대한 몽골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 술한 부족이 전쟁을 했고, 승자가 남긴 아름다운 유물이 전해져 오고 있다.

흉노족 유물에는 사슴과 사자가 들어간다. 3마리의 독수리는 흉노의 상징과도 같다. 사슴을 잡고 있는 독수리 등은 흉노를 대표하는 그림이다. 또 고급 카펫, 금, 옥을 사용한 유물이 많고 동물의 복숭아 뼈를 가지고 일종의 율놀이(뿔)를 했던 풍습이 있다. 몽골은 여전히 양과 말 등의 복숭아 뼈를 가지고 율놀이를 하고 있다.

돌궐은 사슴과 순록을 잘 다뤘다. 은과 금장식이 발달해 있고, 돌궐의 역사를 담은 비석이 아직도 몽골에 보존돼 있다. 기와를 사용했고, 나무를 잘 다뤄 건축에도 소질이 있었다. 돌문화가 발달해 있어 거북이 위에 돌탑을 세우는 것은 한국의 마을 장

승처럼 흔한 일이었다. '알타이 하프'로 불리는 산양뿔로 만든 6줄 악기도 유명한 돌궐의 유물이다.

흉노족의 유명한 이야기도 전해져 오고 있다. 흉노의 왕이 옆 나라 왕의 부탁으로 말을 빌려주게 된다. 이후 옆 나라 왕은 흉노 왕의 아내를 달라고 청하고, 흉노 왕은 이에 응한다. 하지만 흉노의 왕은 마지막 말을 요구하는 옆 나라 왕을 죽여버린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긴다.

"말과 아내는 언제든 줄 수 있지만 땅은 절대 주면 안 된다"

양과 말 등 가축의 먹이인 풀과 나무가 자라는 땅의 중요함을 강조한 유목민의 일화다. 이처럼 몽골인은 자신의 땅에 한 때 살았던 다양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kroh@kwangju.co.kr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풍나무벽, 스텔라타일 외벽, 벽면재질(아크릴계)

시공후: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